

# 자영업주의 직업만족과 생활만족

오 유 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그 이후(2004년)에 자영업주들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영업주의 만족도 패턴이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을 해보고,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군집분석을 통해서 유형은 3개로 나뉘었으며, 각각 만족도 상위, 중위, 하위의 그룹이었다. 만족도 상위인 그룹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으며, 고용주 비율과 학력이 높고, 서울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무일수는 작고, 여성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은 가장 높았다. 만족도 하위인 그룹은 고용주 비율이 낮고, 학력이 높지 않고, 서울거주비율이 가장 높고, 근무일수는 많으나, 소득은 가장 낮았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주는 요인은 1998년과 2004년 공통으로는 직무전반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월평균 소득이 있으며, 근무일수가 작을수록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전반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거주여부는 1998년 직무전반과 생활전반에는 부(-)의 영향을, 2004년에는 두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도 외환위기 직후에는 모두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2004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전반적 직무와 생활 만족도에는 건강상태와 현재직장에 대한 평가(만족도, 열정도, 보람) 등의 변수들이 유의하였다.

## 1.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자영자와 고용주를 일컫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34%에 달하여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것에 반해, 관련 국내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반면 자영업에 관한 국외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자영업주의 특성에 대해 요약하자면 대표적으로 다음의 상반된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Lucas(1978), Blau(1987), 그리고 Blanchflower and Oswald(1998) 등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자영업은 능력우위의 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여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이론이며, 두 번째는 Moore(1983), Evans and Leighton(1989), 그리고 Dennis(1996) 등의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였다는 가설이다. 이와 같이 자영업의 선택사유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며 긍정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며 경직성이 강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에 국내연구에서도 초기에는 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자영업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 들어

-----  
\* 노동부 고용전략팀 전문위원; email: [ohyj@ewhain.net](mailto:ohyj@ewhain.net);

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에 최초로 류재우·최호영(1999)이 비농 전산업에서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80년대에 줄어들다가 90년대에 들어 추세가 반전하여 점차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주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였고,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주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자, 위의 두 번째 가설 즉, 실업률의 증가로 임금근로의 진입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비임금근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학계의 관심이 자영업자에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자영업주들의 특성과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0년대에 들어서 자영업을 하려는 취업자들의 성향이 증대하였음을 보였으며, 이어 류재우·최호영(2000)에서는 실업·비경황과 자영업 간의 노동력 유동이 한계적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김우영(2000)과 안주엽(2000)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금재호·조준모(2000)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는 저능력자군과 대조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능력자군으로 이원화되어있음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주는 소득 면에서도 두 집단으로 나뉘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불평등도가 심각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이들 집단은 학력과 생산성에 의해 구분이 된다고 하였다.

전병유(2003)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한 금융자본이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 지표 등을 포함하여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미시적 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이나 경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과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에 각각 부(-)와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류재우(2004)는 자영부문 취업비중 증가는 이 부문에서의 소득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영부문 취업자의 평균능력(숙련)도 높아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자영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업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큼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영업 부문 내의 양극화의 심화, 저숙련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의 증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성지미(2002)는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성지미·안주엽(2004)은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이며, 가교일자리로서의 자영업을 역할과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최강식 외(2005)는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의 양극화와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 집단에 비해 소득의 평균과 편차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로는 김우영·김응규(2001)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하였다. 1995년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오히려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8)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연구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김우영·김응규(2001)는 그 이유로 임금부문으로부터 퇴출된 사람들이 타의에 의하여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생활 만족도를 통하여 자영업주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만족도는 주관적 평가로, 김우영·김응규(2001)는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로서,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직업만족도는 직업뿐 아니라 가정, 사회생활의 성취도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자영업주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자발적과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원화되어 있으며, 두 군의 이질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만족도에서도 나타나지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외환위기 직후와 그 후에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직업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본고에서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인적속성 등을 비교하였다. 제III장에서는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로 1998년과 2004년의 자영업주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및 비교분석하고, 제IV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자료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차년도)과 2004년(7차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8년에는 총 13,321명 중에서 취업자는 6,425명이고 그 중 임금근로자는 4,010명, 자영업주는 1,886명이었으며, 자영업주는 고용주 519명과 자영자 1,36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04년에는 총 16,610명 중에서 취업자는 6,259명이고, 그 중 임금근로자는 4,256명, 자영업주는 1,539명이며, 이중 고용주는 503명, 자영자는 1,036명이다.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고용주와 자영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자신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사업을 하는 자영자로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에서 관측한 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있으며, 1998년에는 자영업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는 직무관련 6개 부문의 만족도(소득 및 수입,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개인발전가능성, 근로환경, 근로시간)가 있으며, 생활만족에 관련해서는 생활전반을 포함한 5개 부문의 만족도(생활전반, 가족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가 있다. 2004년에는 직무관련 만족도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는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 관계’라는 두 개

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각 만족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값은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그리고 5(매우 만족)이다. 다만 1998년에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항목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직무관련 만족도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표 1>은 각 만족도들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초통계이다.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자의 통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자영업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들이 1998년도 보다 2004년도에 상승하였다. 그리고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 연령, 학력, 남성비율, 가족동거비율, 소득유무와 소득액은 증가한 반면, 서울거주비율과 직업훈련여부, 그리고 근로일수는 짧아졌다. 두 시점의 공통점으로 직무와 생활만족도 중에서 소득관련 항목은 모두 다른 만족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관계나 친인척, 사회적 친분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임금근로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소득/수입’과 ‘개인발전가능성’ 부문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근로자는 1998년에는 직무만족도 중 ‘소득/수입’에서 만족도가 자영업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2004년에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만족도 이외의 항목에서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근로일수, 소득, 연령, 남성비율<sup>1)</sup>, 가족동거비율 등이 높은 반면, 서울거주비율, 직업훈련비율, 월 소득유무,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자영업주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1> 1998년과 2004년도 기초통계

변수명	1998		2004		변수명	1998		2004	
	자영 업주	임금 근로	자영 업주	임금 근로		자영 업주	임금 근로	자영 업주	임금 근로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 직무전반	2.69	2.97	3.00	3.10	- 생활전반	2.83	2.99	3.18	3.25
- 소득/수입	2.11	3.43	2.40	2.71	- 가족수입	2.37	2.65	2.54	2.74
- 취업안정성	2.67	3.04	3.00	3.15	- 여가활동	2.67	2.77	2.78	2.94
- 직무내용	3.07	2.75	3.25	3.26	- 주거환경	3.05	3.09	3.23	3.24
- 개인발전가능성	2.78	3.11	2.97	3.01	- 가족관계	3.77	3.78	3.61	3.61
- 근로환경	2.81	2.98	3.03	3.14	- 친인척관계	-	-	3.43	3.41
- 근로시간	2.72	-	2.91	3.10	- 사회적 친분 관계	-	-	3.40	3.40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2.55	3.17	3.22					
고용주 비율(%)	27.5	-	32.7	-	서울지역거주비율(%)	26.0	28.6	20.1	24.0
만나이	45.5	37.6	48.5	38.8	직업훈련여부(%)	10.6	12.0	5.1	11.4
학력	2.7	3.2	2.8	3.3	월평균 소득유무(%)	81.9	99.9	92.3	99.9
남성 비율(%)	71.6	63.1	74.7	60.3	월평균 근로일수	26.3	24.9	24.3	22.9
가족동거여부(%)	98.7	96.8	99.5	97.9	월평균 소득액수(만원)	128	111	228	157

주: 1) 직무만족도는 직무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의미하며, 1998년에는 직무전반의 항목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항목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2) 월평균 근로일수는 1998년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월 기준근로일수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일수(자영업주)와 주당 정규근로시간(임금근로)을 월 기준으로 전환함.

3) 학력은 순서변수로 1(초졸),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이상)임.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주의 만족도 관련 실증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영업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자영업주를 직무와 생활 만족도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어떤 특징을 갖는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또한 집단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영업주의 각 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 III. 분석결과

#### 1. 자영업주의 유형별 특성

본 절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들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의 군(cluster)으로 묶어서 각 군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보고, 군들 사이에 과연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기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며 자영업주 중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각 항목들에서 유사한 답을 기록한 자들을 하나의 군(cluster)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만족도 항목들이 10개 이상으로 다양하여, 인위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 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군집분석은 이상점(outlier)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만족도 항목들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이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군집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군의 개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 시도하여 분석해본 결과, 자영업주는 1998년과 2004년도에 각각 3개의 군<sup>2)</sup>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분석결과로 3개 군에 대한 만족도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1998년과 2004년 공통적으로 그룹1(상위)은 직무와 생활만족도가 모두 평균이상으로 높은 집단이며, 그룹2(중위)는 직무만족도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나, 생활만족도는 평균정도이며, 그룹3(하위)는 직무와 생활만족도가 모두 평균이하로 낮은 그룹이다. 그룹2의 경우 시점 간에 직업만족도에서 약간 다른 경향이 드러났는데, 1998년에는 ‘소득’과 ‘취업안정성’ 부문에서는 점수가 만족도가 낮았지만, 나머지 부문(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은 보통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2004년도는 ‘소득’과 ‘취업안정성’에서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에 약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998년도와 2004년도 모두 그룹1은 만족도가 상위, 그룹2는 중위, 그룹3은 하위인 집단으로 특성이 드러났으므로, 각 집단을 명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각각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이라 하기로 한다. 1998년에는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인원과 비중은 각각 681 (36.1%), 506 (26.8%), 699 (37.1%)명이며, 2004년에는 437 (28.4%), 823 (53.5%), 279 (18.1%)명으로 구성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만족도 하위집단이 37.1%로 매우 높았으나, 2004년도에는 18.1%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만족도 중위집단의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능력우위의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자들이 많았던 반면 2004년에는 만족도 하위집단의 비중이 현격히 줄고 만족도 중위집단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물론 외환위기 직후에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로 만족도가 하락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이어진 경기 불안정등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하위그룹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관련 만족도(직무만족도 중 ‘소득/수입’과 생활만족도 중 ‘가족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1998년과 2004년 모두 1점대로 매우 낮았으나, 가족관계와 친인척 및 사회적 친분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 군(cluster)의 개수는 2에서 8까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으나, 3개로 나눌 경우가 가장 자료를 적절하게 대표하면서 본 연구자가 특성을 구분하기에도 가장 적절하였다.

<표 2> 집단별 만족도

	1998				2004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직무만족도								
-소득/수입	2.98	1.63	1.58	2.11	2.85	2.40	1.67	2.39
-취업안정성	3.49	2.43	2.03	2.67	3.58	2.95	2.22	3.00
-직무내용	3.64	3.31	2.32	3.07	3.91	3.12	2.57	3.24
-개인발전가능성	3.34	2.98	2.07	2.78	3.67	2.82	2.31	2.97
-근로환경	3.34	3.02	2.13	2.81	3.68	2.91	2.33	3.03
-근로시간	3.21	2.92	2.09	2.72	3.57	2.77	2.25	2.9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	-	-	3.71	3.07	2.59	3.17
-직무전반	-	-	-	-	3.68	2.93	2.12	3.00
생활만족도								
-생활전반	3.39	2.89	2.22	2.83	3.45	3.26	2.52	3.18
-가족수입	3.09	2.12	1.84	2.37	2.86	2.61	1.81	2.54
-가족관계	3.88	3.95	3.52	3.77	3.71	3.70	3.15	3.60
-여가활동	3.03	2.94	2.10	2.67	3.00	2.89	2.09	2.78
-주거환경	3.32	3.37	2.53	3.05	3.40	3.34	2.60	3.22
-친인척관계	-	-	-	-	3.53	3.52	2.99	3.43
-사회적 친분 관계	-	-	-	-	3.56	3.44	2.98	3.39
인원(명)	681	506	699	1,886	437	823	279	1,539

<표 3>에는 전체 자영업주와 각 세부집단의 만족도들과 개인의 인적속성, 근로일수, 소득 등의 기초통계가 정리되어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건강상태’와 ‘현재 직장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학력은 순서변수로 1(초졸),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이상)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에서 현재 건강상태부터 현재직장지속희망여부까지는 모두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만족도 상위그룹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일수와 높은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위그룹일수록 고용주 비율과 학력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의 한계효과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았다. 또한 상위집단일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로 보면 대체로 상위집단의 평균 연령이 낮으며, 2004년에는 그 편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거주비율은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낮았다. 2004년도에만 관측이 된 항목들은 상위집단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며, 교육과 기술수준 대비 현재하는 일의 수준이 높고, 현재 일자리의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현재 직장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집단별 기초통계

	1998				2004			
	그룹1	그룹2	그룹3	평균	그룹1	그룹2	그룹3	평균
	상위	중위	하위		상위	중위	하위	
고용주 비율(%)	33.4	20.2	20.2	27.5	43.7	30.7	21.2	32.7
만나이	45.2	45.1	45.8	45.5	46.0	49.7	48.8	48.5
학력	2.79	2.75	2.49	2.7	3.29	2.71	2.53	2.8
남성 비율(%)	71.4	76.3	68.4	71.6	70.7	78.1	70.6	74.7
동거여부(%)	98.9	98.6	98.6	98.7	99.3	99.5	99.6	99.5
서울지역거주비율(%)	22.6	24.9	30.0	26.0	16.9	20.7	23.7	20.1
직업훈련여부(%)	13.5	10.1	8.0	10.6	6.4	5.2	2.5	5.1
월평균 소득유무(%)	93.3	76.6	74.4	81.9	93.6	93.8	85.7	92.3
월평균 근로일수	26.0	26.2	26.7	26.3	23.8	24.5	24.5	24.3
월평균 소득액수(만원)	161.4	114.5	97.8	128	274.7	232.7	133.4	228
현재 건강상태	-	-	-	-	3.61	3.37	3.09	3.39
1년전 대비 건강상태	-	-	-	-	2.95	2.92	2.75	2.90
보통사람 대비 건강상태	-	-	-	-	3.49	3.30	3.03	3.30
교육수준대비현재하는일	-	-	-	-	2.94	2.83	2.64	2.83
기술수준대비현재하는일	-	-	-	-	2.94	2.85	2.66	2.84
현재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 리로 같 경우 유용한 정도	-	-	-	-	3.50	3.14	2.88	3.19
나는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	-	-	-	3.68	2.99	2.24	3.05
-열정적	-	-	-	-	3.91	3.39	2.97	3.46
-즐겁게	-	-	-	-	3.85	3.23	2.63	3.30
-보람	-	-	-	-	3.83	3.18	2.62	3.26
-지속희망여부	-	-	-	-	4.01	3.44	2.93	3.51
인원(명)	681	506	699	1,886	437	823	279	1,539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정리하면, 만족도 높은 집단은 고학력의 고용주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시간이 적으며, 소득이 높고, 현재직장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에의 참가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등 적극적이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위집단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여부가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일수는 많은 반면, 소득액이 낮았다. 게다가 소득은 1998년에 중위그룹의 소득이 평균에 못 미치나, 2004년에는 중위그룹의 평균을 상회하며, 2004년에 상위와 하위그룹의 평균 소득격차는 140만원 정도로 1998년의 70만원에 비해 2배가량 격차가 더 벌어져서,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류재우(2004)는 자영업 범주에는 원초적인 형태로 자영업주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인 '생계형'에서부터 전문직종, 첨단직종,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 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 2.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직후와 그 이후인 1998년도와 2004년도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또한 외환위기 직후와 그 후에 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졌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표 4>는 전반적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1998년도와 2004년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회귀변수는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나이, 성, 학력, 가족동거여부, 서울거주여부 등과, 개인의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소득유무, 근무일수, 소득 등이 있으며, 2004년에는 이외에도 건강관련 변수(현재, 1년전, 보통사람대비 건강상태), 현재 하는 일의 수준(교육과 기술수준 대비), 그리고 '현재 일자리의 유용한 정도'와 '현재 직장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하였다.

전반적 직무만족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평균근무일수가 짧은 경우도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와 2004년도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변수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외환위기 직후에는 가족과 동거를 하며, 비서울, 고용주, 직업훈련경험이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반면, 2004년도에는 나이가 많고 고학력인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에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현재 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한 경우, 그리고 현재 직장의 평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생활만족에서도 외환위기 직후와 2004년도에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1998년도에는 고학력, 가족과 동거, 비서울거주, 짧은 근무일수, 높은 소득이 만족도를 상승시킨 반면, 2004년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직장에 만족하며 즐겁고 보람을 느낄 경우 생활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졌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반적 직무만족		전반적 생활만족	
		1998	2004	1998	2004
나이		-0.002 (0.002)	0.003 (0.002)**	-0.002 (0.002)	0.007 (0.002)***
성별(기본:여자)		-0.078 (0.042)*	-0.083 (0.033)**	0.039 (0.053)	-0.009 (0.037)
학력		0.020 (0.018)	0.051 (0.014)***	0.071 (0.023)***	0.067 (0.016)***
가족동거여부(기본:비동거)		0.370 (0.179)**	-0.094 (0.183)	0.476 (0.228)**	0.070 (0.206)
거주지(기본:서울이외)		-0.153 (0.046)***	-0.074 (0.058)	-0.161 (0.059)***	-0.069 (0.066)
종사상지위(기본:자영자)		0.265 (0.048)***	0.049 (0.033)	0.068 (0.061)	0.033 (0.037)
직업훈련경험		0.195 (0.058)***	0.009 (0.067)	0.090 (0.074)	-0.111 (0.075)
월평균 소득유무		2.633 (0.245)***	0.524 (0.27)*	2.128 (0.312)***	0.785 (0.304)***
평균근무일수		-0.012 (0.004)***	-0.002 (0.0009)**	0.003 (0.006)***	-0.0008 (0.001)
월평균 소득		0.001 (0.0002)***	0.00002 (0.00005)	0.001 (0.0001)***	-0.00005 (0.00006)
현재 건강상태			0.086 (0.032)***		0.085 (0.017)**
1년전 대비 건강상태			-0.099 (0.040)**		0.003 (0.045)
보통사람 대비 건강상태			0.011 (0.033)		0.055 (0.037)
교육수준대비현재하는일			0.105 (0.091)		0.023 (0.102)
기술수준대비현재하는일			0.052 (0.092)		0.06 (0.104)
현재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 리로 갈 경우 유용한 정도			0.041 (0.016)**		0.012 (0.018)
나는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0.244 (0.024)***		0.157 (0.027)***
-열정적			-0.056 (0.029)**		-0.021 (0.032)
-즐겁게			0.141 (0.034)***		0.105 (0.038)***
-보람			0.086 (0.033)***		0.069 (0.037)*
-지속희망 여부			0.052 (0.024)**		-0.029 (0.027)
adj $R^2$		0.9470	0.9764	0.9248	0.9729
관측수		1,315	1,271	1,315	1,271

주: 1)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며 \*, \*\* 및 \*\*\*는 추정계수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종속변수 중 1998년의 '전반적 직무만족'은 1998년도 조사항목에 없는 관계로 관찰된 직무관련 6개 항목의 평균값을 '전반적 직무만족도'로 사용하였다.

3) 평균근무일수는 1998년도는 한달평균 근무일수이며, 2004년도는 주당평균 근무시간임.

<표 5>는 직무관련 각 세부 만족도들을 종속변수로 둔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여기에는 유의한 변수들만 표에 나열하였다. 회귀변수는 <표 4>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며, 각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수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는 1998년에는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개인발전가능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의 만족도였으나, 2004년에는 소득, 개인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의 만족도에 국한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에는 소득유무가 대부분의 만족도에 정(+)<sup>1</sup>의 관계인 반면, 2004년도에는 현재직장관련항목(만족도, 열정, 즐거움, 보람, 지속희망)<sup>2</sup>이 대부분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무관련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1998	2004
소득	여성, 소득유무, 소득액, 근로일수	고연령, 고용주, 현재직장(만족도, 열정정도, 지속도), 1년전대비건강상태
취업안정성	가족동거, 비서울거주, 고용주, 직업훈련, 소득유무, 소득액	고연령, 짧은 근로시간, 현재직장(만족도, 지속도, 기술유용정도)
직무내용	비서울거주, 고용주, 직업훈련, 소득유무, 소득액	여성, 고학력, 소득유무, 현재직장(만족도, 즐거움, 보람, 지속도, 기술유용정도), 교육수준대비현재하는일, 보통사람대비건강상태
개인발전가능성	저연령, 여성, 고용주, 직업훈련, 소득유무, 소득액	고학력, 고용주, 소득유무, 짧은 근로시간, 현재직장(만족도, 보람, 지속도, 교육수준대비, 기술유용정도)
근무환경	고용주, 직업훈련, 소득유무, 소득액	고연령, 여성, 고학력, 짧은 근로시간, 현재직장(만족도, 열정정도, 즐거움, 보람)
근로시간	비서울거주, 고용주, 소득유무, 짧은 근로시간	고학력, 비서울거주, 소득유무, 짧은 근로시간, 교육기술수준대비 현재하는일, 현재일자리기술의유용정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고용주, 소득유무, 짧은 근로시간, 현재직장(보람, 지속도, 기술유용정도), 건강(현재, 1년전대비)

한편, 생활관련 각 세부 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들은 <표 6>에 정리되었으며, 생활관련 만족도에서는 고용주가 자영자에 비해 1998년의 가족수입을 제외하고서는 유의한 경우가 없었으며, 2004년도에 추가된 변수인 현재직장관련 변수들과 건강관련 변수들이 만족도에 정(+)<sup>1</sup>의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표 6> 생활관련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1998	2004
가족수입	고용주, 소득유무, 소득액, 짧은 근로일수	고연령, 여성, 소득유무, 현재직장(만족, 지속도), 건강(보통사람대비)
여가활동	고연령, 남성, 고학력, 비서울거주, 고용주, 소득유무, 소득액, 짧은 근로일수	고연령, 고학력, 소득유무, 짧은 근무시간, 현재직장(만족, 즐거움, 보람)
주거환경	고연령, 비서울거주, 소득유무, 소득액	고연령, 고학력, 소득유무, 짧은 근무시간, 현재직장(만족), 건강(보통사람대비)
가족관계	저연령, 남성, 비서울거주, 소득유무	고학력, 소득유무, 짧은 근무시간, 현재직장(지속), 현재건강
친인척관계		고연령, 고학력, 소득유무, 현재직장(보람), 현재건강
사회적 친분관계		고연령, 고학력, 소득유무, 근무시간, 근무일수, 현재직장(보람), 기술유용정도, 건강(현재, 1년전대비)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주들이 만족도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지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각 유형별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직업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자영업주는 군집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모두 포함하여 크게 3가지로 유형이 나뉘었으며, 각 집단을 만족도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하위와 상위 집단에 비중이 많이 몰려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하위의 비중이 반 이상 줄어들고, 중위 집단에 비중이 몰렸다. 이를 통해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집단별 특징으로는 만족도 상위 집단은 고학력의 고용주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시간이 적으며, 소득이 높고, 현재직장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에의 참가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등 적극적이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위집단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자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여부가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일수는 많은 반면, 소득액이 낮았다. 게다가 소득의 격차는 2004년에 더 벌어져서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환위기 직후와 2004년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 직무만족에는 1998년에는 여성, 짧은 근무일수, 고소득, 비서울거주, 고용주, 직업훈련경험이 정(+ )의 관계가 있었으며, 2004년에는 여성, 짧은 근무일수, 고연령, 고학력, 현재건강상태, 현재 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한 경우, 그리고 현재 직장의 평가가 만족할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만족에는 1998년도에는 고학력, 가족과 동거, 비서울거주, 짧은 근무일수, 높은 소득이 만족도를 상승시킨 반면, 2004년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직장에 만족하며 즐겁고 보람을 느낄 경우 생활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졌다.

## 참고문헌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3): 81-107.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2): 55-80.
- 김우영·김유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권 3호 (2001.9): 29-54.
- 류재우.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52집 2호 (2004): 5-32.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호 (1999.6): 109-140.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권 1호 (2000.6): 137-165.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 (2002.3): 161-182.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권 2호 (2004.8): 1-27.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3): 109-132.
- 전병유.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권 3호 (2003.12): 149-179.
- 최강식·정진욱·정진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권 1호 (2005.4): 135-156.
- Blanchflower, David, and Andrew, J. Oswald.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January 1998): 26-60.
- Blau, David M.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June 1987): 445-67.
- Dennis, W.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4) (1996): 645-661.
-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June 1989): 519-535.
- Lucas, Robert.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 (Autumn 1978): 508-23.
- Moore, Robert L. "Employ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3) (August 1983): 496-501.